

보도시점

2024. 8. 26.(월) 09:00

배포

2024. 8. 26.(월) 09:00

## 국내 지하수·지질 분야 우수성, 전 세계에 알린다

- 세계지질과학총회(ICG2024)에서 혁신적인 국내 지하수·지질 분야 성과 홍보-

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‘제 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(ICG 2024)’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지하수·지질 분야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.

「세계지질과학총회」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지질학 학술대회로, 이번 총회에는 120개국에서 약 6천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.

공사는 이번 총회에서 ▲국내 지하수 개발역사, ▲기후위기 대비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, ▲해외 수자원 및 관개시설 개발 사례, ▲지하수관리시스템 시연 등 공사의 선진 지하수 관리 기술과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한다.

특히, 28일에는 국내·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‘기후위기 환경에 따른 지하수 대수층의 가뭄 취약성’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을 운영하여,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.

이병호 사장은 “우리나라의 지하수·지질 분야 전문기술력을 전 세계와 공유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.”라며 “이번 총회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학술교류를 강화하여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지하수·지질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지하수지질처  | 책임자 | 부 장 | 박영규 (061-338-5791) |
|       | 물순환지하수부 | 담당자 | 과 장 | 정휘제 (061-338-5792) |